

원 소린지 알 듯 말 듯

(만성 파과형 정신 분열병)

1898년 크레펠린(Kraepelin)은 내인성 정신병(內因性 精神病: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이 없이 때가 되면 은근히 발병하는 정신병)을 그 경과와 예후에 따라 조기 치매와 조울 정신병으로 구분하였다. 조기 치매는 외인적 요인이 없이 청소년기에 발병하고 급속한 경과를 밟으며(down hill course) 단기간에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특징을 갖는 정신병에 대한 명명이었다.

그 후 1911년 블로일러(Bleuler)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의 정신 분열병을 명명하였을 때 이 조기 치매는 정신 분열병의 한 아형(亞型)으로 분류되었다. 현재에는 이런 급격히 발생하고 무자비하게 악화되는 정신병을 파과형(破瓜型) 정신 분열병으로 분류한다. 이 병은 그다지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아직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치료를 열심히 해도 궁극적으로 나빠지고야 마는 경과를 밟는다.

이 환자들의 특징은 심하게 지리멸렬한 생각과 정동(情動)의 부조화이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인격의 황폐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괴상한 생각이 흔히 있으며 대량의 환청과 환시를 경험한다. 경과는 매우 좋지 않고 대부분은 장기적인 입원 생활이나 수용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발병 당시 18세였던 L군은 처음에 갑자기 학교를 가지 않고 혼자서 방안에 앉아 깔깔대고 웃거나 부모에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심한 증상을 보여 급성 정신병의 진단 하에 개인 의원에 일주일간 입원 치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급성 증상이 소실되고 그저 잠을 잘 잘 정도가 되었을 때 부모는 그를 퇴원시켜 버렸다. 그 후 그는 두문불출하고 자신의 방안에만 틀어 박혀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바이오리듬’을 연구한다고 몰두하는 왜곡된 생활 습관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의 아이들이 “텔레파시를 보내 해치려고 한다”며 그 집을 찾아가 난리를 피운 후 다시 응급 입원되었다.

면담 도중 그는 지리멸렬(支離滅裂)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화를 하였다.

“갑자기...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머리 뒤 숨골에서 뭐가 빠져나가는데, 불안하니까... 사

실 이런 병이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데 힘도 없어지고, 나약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시원하게, 건망증이 없어지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속칭!’ 아세요, 속칭? 몸이 약하니까… 갈구하는 외로움이 있으니까, 아, 옛날에야 노이로제 비슷한 게 있었지요… 담배 한 대 피우니까 갑자기 뒤통수에 공포감이 생겼지요.”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느끼며, 그것을 치료자에게 설명하고자 함이었겠으나 결국에는 정제되지 않은 사고(思考)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설득력의 장애를 보였다. 모자를 입었다가 장갑을 신었다가… 어쩐지 어색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벗어 던지지도 못 하는 것 같은 몹시도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었다. 환청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더니,

“거 참 약이란 게 신기하더라고요. 환상, 망상, 망상을 도와주는 환상이 있었는데… 지내 놓고 보니까… 잘 아시죠? 뭐. 약 먹고 계속 시간을 보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변하더라고요.”

라며 나름대로의 느낌을 열렬히 설명하였다. 하고자 하는 말인즉, “환청이 있기는 한데 약을 먹으니 신기하게도 그것이 줄더라”라는 것이었겠다.

그는 입원 전에 거의 현실과 상상, 자기 집안의 일과 TV속 드라마의 일을 혼동하며 지내왔다. 그리하여 며느리를 구박하는 독한 시어머니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큰 소리로 흥분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다.

그 환자의 증상은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고장 난 자동차처럼 심한 상태였으므로 ‘예후 최악’의 판정을 받았으며, 판정에 걸맞게 각종의 항 정신병 약물을 단독으로 쓰건 콕테일 해서 쓰건 거의 반응이 없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다행스럽게도 제3세대 정신병 약이라는 신약 물질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렸다.

그는 퇴원 후 매일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하루해를 보낸다. 장난감 자동차와 곰 인형이 늘 함께 있는 자신의 성(城) 안에서 그는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때로는 혼자 화를 내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에 한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자신의 발로 병원에 찾아와 비록 횡설수설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소신을 말하기도 하고, 뉴스에서 본 내용을 흥내 내며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번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신병은 현대병이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 현대병이

라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말입니다.”